

# 서울市民的 餘暇活動에 關한 社會地理學的 研究

朴 淑 姬

## ◁目 次▷

1. 序 論	(2) 社會經濟的 地位別 餘暇活動 (教育水準, 職位, 月所得, 所有財產)
(1) 研究目的	(3) 社會階層別 餘暇活動
(2) 研究方法	4. 住居地域別 餘暇活動
2. 餘暇의 類型別 餘暇活動	(1) 調查地域의 一般的 特性
(1) 餘暇와 餘暇活動의 分類	(2) 住居地域別 設問紙 應答者의 社會經濟的 地位
(2) 餘暇活動의 種類	(3) 地域別로 分 餘暇活動
(3) 餘暇活動의 空間的 範圍	5. 結 論
(4) 餘暇活動의 所要時間과 頻度	
3. 社會 集團別 餘暇活動	
(1) 年齡層別 餘暇活動	

## 1. 序 論

### (1) 研究目的

現代의 產業社會에서는 都市 生活이 가장 지메적인 生活樣式으로 되고 있으며 최근 經濟의 發展은 所得의 增大와 더불어 都市民에게 보다 많은 餘暇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餘暇活動은 都市生活의 主要한 一部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近來에는 餘暇를 利用하는데 對한 關心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餘暇活動은 住居, 勞動, 給養, 教育, 交通 및 共同生活과 더불어 人間의 存在基本機能(Daseinsgrundfunktionen)<sup>1)</sup>의 하나이며 그 空間的 分布패턴과 프로세스의 研究는 社會地理學的 研究의 主要한 課題가 된다. 그것은 社會的 集團에 따라 우선 누릴 수 있는 餘暇의 量과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現代社會에서는 個人에게 주어지는 餘暇가 점

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社會發展에 따른 一般的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餘暇의 量的, 質的 수준에 있어 보편화 내지 一般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餘暇活動의 種類는 休息과 수면, TV시청, 음악감상등의 受動的이고 靜的인 活動에서 부터 산책, 쇼핑, 登山, 낚시, 屋外스포츠어나 여행 등 積極的이고 動的인 活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各各의 餘暇活動에 소요되는 經費(努力, 時間, 費用)가 相異할 뿐만 아니라 各集團이 갖는 價値觀과 生活樣式에 따라 그들의 餘暇活動에는 種類의 差異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相異한 社會的 集團에 따라 餘暇活動의 空間的 類型도 相異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餘暇活動의 機能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勞動에 의한 피로를 回復시켜 주는 休息機能이다.

이 論文은 慶熙大學校 大學院에 제출한 碩士論文을 수정 가필한 것임.

1) Partzsch, D., 1970, "Daseinsgrundfunktionen," in *Handwörterbuch der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2. Aufl. Hannover, pp. 423-430.

Ruppert, K. und Schaffer, F., 1969, "Zur Konzeption der Sozialgeographie," *Geographische Rundschau*, 21, pp. 205-214.

Maier, J. et. al., 1977, *Sozialgeographie*, Westermann.

둘째, 反復, 습관화된 직업적, 가정적 일상 생활로부터 이탈, 해방시켜 주는 氣分轉換機能이다.

세째, 機械的인 固陋한 日常的 思考나 行爲로부터 解放되어 自由롭게 새로운 創造的 自我發展의 活動을 마련해 주는 自己啓發機能이다.<sup>2)</sup> 餘暇는 勞動에 對比되는 概念일 뿐 아니라 새로운 勞動을 爲한 ‘生産的 活動’의 一部라고 볼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人間의 自我實現을 向한 基本欲求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餘暇를 단순한 休息이나 觀光같은 놀이 뿐 만이 아니라 回復을 爲한 活動(sich-erholen)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餘暇에 對한 研究는 歐美에서 地理學<sup>3)</sup> 을 비롯한 學問의 여러分野에서 상당히 研究가 進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重要性이 부쩍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觀光學分野에서 그 努力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大衆化된 餘暇文明과 觀光과의 關係 또는 건전한 國民觀光을 爲한 觀光地造成에 役점을 두고 있다.<sup>4)</sup>

本 研究는 서울市民의 餘暇活動에 對해 그 種類, 頻度 및 所要時間과 空間的 패턴을 特히 社會的 集團과 住居地域에 따라 分析하고 그 差異를 밝혀 地理學的으로 說明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基礎研究의 結果가 앞으로의 都市計劃 또는 地域計劃을 爲해 어떤 政策的의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進行되었다. 그것은 特히 餘暇活動을 爲한 空間的 造成이 주로 大單位 觀光地造成에만 집중되어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많은 都市住民들은 그들이 갖는 餘暇의 大部分을 住居地域內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住居地域 環境이 餘暇活動에서 갖는 意義를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研究方法

### 1) 設問紙 調査

研究의 基本的 方法으로는 設問紙 調査法이 사용되었다. 研究目的에 따라 設問紙를 作成하여, 서울市の 特정한 5個 住居地域의 住民을 대상으로 배포, 수거되었다. 設問紙의 回收率과 應答內容의 信賴度를 높이고 어느정도 生活여건이 安定된 연령층에 중점을 두기로 하여 해당 住居地域의 中學校 二學年에 子女를 가진 學父兄을 對象으로 하였다 가능한 한 서로 다른 階層을 구성하고 있는 住民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도록 地域特性에 따라 學校를 선택하려고 努力하였다.

設問紙 調査에 對象이 된 地域과 學校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市 외곽지역(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상계여자중학교

② 공업단지 주거지역(구로동, 독산동, 개봉동) : 구로중학교

③ 전통적 舊주거지역(재동, 가회동, 원서동, 삼청동) : 중앙·대동중학교

④ 신흥 단독 주택지역(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 연신중학교

⑤ 강남 아파트 단지지역(반포동, 방배동) : 반포중학교

調査期間은 1983年 7月 2日부터 1983年 7月 20日까지였다. 총 1,000枚中 880枚가 회수되었고, 그 中 기재가 不實한 것들을 제외한 765枚가 分析에 사용되었다(표 1).

本 調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中學校의 學生을

〈표 1〉 설문지 회수율과 이용율

학교	대수		제외된 설문지	이용한 설문지	이용률 %
	배포 설문지	회수한 설문지			
상 계 여 중	200	162	21	141	70.5
구 로 중	200	187	32	155	77.5
중앙중·대동중	200	185	31	154	77.0
연 신 중	200	180	5	175	87.5
반 포 중	200	166	26	140	70.0
계	1,000	880	115	765	76.5

2) 朴龍虎, 1975, “우리의 餘暇 活用 問題,” 京畿 9號, 京畿大學生會, p. 78.

3) Patmore, J. Allan, 1970 *Land & Leisure*, Fairleigh Dickinson Univ. Press, pp. 19-25.

4) 李長春, 1981 “餘暇 文明下에서의 國民 觀光性向과 政策 方向에 關한 研究,” 京畿大學論文集, 第9輯, pp. 457-473.

金鎮卓, 1984. “國民 觀光 레크레이션 動態 調査,” 觀光學, 7號, 韓國觀光學會, pp. 125-132.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設問紙 회수율과 응답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學校 二學年에 子女를 둔 學父兄만이 調査對象에 포함되었으므로 연령적으로 대부분 30代, 40代, 50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10代, 20代の 젊은 세대와 60代, 70代の 노년층이 제외되었으며, 長年層이라도 中學校 二學年에 子女를 두지 않은 住民들은 調査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번 調査는 學生의 보호자 즉,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총 응답자의 81.0%가 남자이다 그것은 世代主가 家口의 餘暇活動을 代表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社會적으로 男性이 女性보다 一般的으로 餘暇活動에 대해 보다 積極的 態度(positive belief and feeling)를 갖는다는 점<sup>5)</sup>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2) 主觀的 階層

本 調査에서는 社會的 集團을 區分함에 있어 주로 世代主의 地位와 生涯段階(life stage)를 나타내는 연령층이 指標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社會的 階層의 區分方法으로 主觀的 接近方法(subjective approach)를 利用하였다. SSE(Soziale Selbsteinstufung)<sup>6)</sup>라 불리는 代表的인 主觀的 階層區分方法의 原理를 利用하면서 社會的 階層을 代表하는 職業에 對한 先行研究의 不足에 따른 方法上의 難點을 고려하여 주어진 수직적 7個의 階層等級(scale)에 따라 自身의 階層所屬을 직접 表示하는 方法을 썼다.

社會的 階層概念을 구성하는 指標로는 教育程度, 職位, 月所得, 所有財產이 고려되었고 職業을 구체적으로 表示하게 하였다. 이러한 절충방식은, 各 個人은 自身이 評價하는 自身의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環境과 欲求를 재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行動을 하게 될 것이라는 基本가설에서 表출된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부수적 目的의 하나는 主觀的 階層區分方式이 餘暇活動에 對한 社會地理學的研究에 어느정도 有用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餘暇의 類型別 餘暇活動

### (1) 餘暇와 餘暇活動의 分類

餘暇란 勞動과 生理的 必需時間을 除外하고 個人에게 自由롭게 주어지는 時間으로서 여러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餘暇의 長短, 週期性, 他活動 時間과의 關聯性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① 平日, ② 週末, ③ 連休, 名節, 및 年暇로 區分하여, 各各의 區分된 餘暇의 分類에 따라 어떤 餘暇活動이 特色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餘暇活動의 種類가 다양하여 일일이 列擧하기는 어렵다, 本 研究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일단 生活用語로 羅列하였다.

① 텔레비전시청. ② 휴식 또는 잠. ③ 음악 감상(라디오, 스테레오, 오디오시스템), ④ 바둑등 잡기. ⑤ 독서. ⑥ 정원가꾸기·집안손질 ⑦ 이웃마실(도보로 가는 곳). ⑧ 친지방문. ⑨ 친구와 음주대화(음식점, 주점에서). ⑩ 가족과 외식. ⑪ 산책(산보) 또는 조깅. ⑫ 운동장에서 스포츠경기 관람. ⑬ 영화 관람(영화관에서). ⑭ 쇼핑(장보기). ⑮ 정구(tennis). ⑯ 등산. ⑰ 승마. ⑱ 소풍(피크닉). ⑲ 낚시. ⑳ 골프. ㉑ 관광여행. ㉒ 야영(캠핑) ㉓ 해수욕. ㉔ 성묘(고향방문) ㉕ 스키 ㉖ 기타.

텔레비전시청, 휴식 또는 잠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餘暇活動이라고 할 수 있고, 스포츠, 觀光旅行등은 적극적, 능동적인 餘暇活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前者는 靜的인 活動이 主流을 이룬다. 그 밖에 친지방문, 이웃마실, 친구와의 社交등은 社會的 關係의 연장이라는 性格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고, 집안손질이나 쇼핑도 餘暇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타 항목에는 여가 활동으로 예배를 본다, 절에 간다, 미사를 드린다, 불공을 드린다등의 宗教活動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수이지만 서예를 한다, 수석을 수집한다, 그림을 그린다, 공

5) Ragheb, M.G. and Beard, J.G., 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Second Quarter, p. 166.

6) Kleing, G. und Moore, H., 1968, "Soziale Selbsteinstufung (SSE), Ein Instrument zur sozialer Schichte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Jg. 20, pp. 502-552.

에 품을 만든다 등의 취미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이들 細分된 餘暇活動들을 그 活動의 屬性에 따라 類型化하지 않고 分析過程에서 特定人口集團이 갖는 두드러진 餘暇活動의 類型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餘暇活動이 前述한 바와 같이 어떤 基準에 따라 선명하게 分類되는 것이라기 보다 複合的 性格을 띠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關心은 어떤 餘暇活動이 어떤 범주의 것인가를 分析하는데 있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의 餘暇活動이 대체로 어떤 特性을 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餘暇活動의 種類

### 1) 平日의 餘暇活動

平日의 餘暇活動으로는 ① TV시청(24.1%)<sup>7)</sup> ② 休息 또는 잠(19.1%)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③ 독서(13.8%)와 ④ 바둑등 잡기(9.1%) ⑤ 음악감상(4.8%) ⑥ 정원가꾸기·집안손질(10.0%)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표 2).

平日의 餘暇가 시간적으로 짧기도 하지만 勞動의 틈틈이에 休息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靜的인 活動이 그 大部分을 차지한다. 산책, 이웃마실, 친구와의 음주대화가 平日의 여가활동으로 의미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後者의 경우에는 韓國 大都市에서의 生活樣式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 정구, 골프등의 스포오즈活動도 적은 비율이지만 平日의 餘暇活動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週末의 餘暇活動

週末의 餘暇活動으로는 TV시청(14.3%)과 休息 또는 잠(12.5%) 등이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平日의 餘暇活動에 比하면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크게 떨어진다. 친지를 방문(4.7%)하거나 각종 스포오즈活動(등산—10.7%, 낚시—8.4%, 골프—4.1%, 정구—2.5%)을 즐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며 정원가꾸기·집안손질(10.5%), 종교활동(6.4%), 가족과 외식(3.5%), 산책(3.2%), 친구와 음주

대화(2.8%), 쇼핑(2.8%)도 상당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표 2).

요컨대 週末의 餘暇活動은 平日의 活動처럼 靜的이고 受動的인 것에 局限되어 있지 않고 그 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餘暇의 時間이 길고 비교적 규칙적이기 때문에 事前에 계획된 餘暇活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平日의 餘暇活動에 比해 보다 많은 經費(시간, 노력, 비용)를 지출하려 할 것이고, 活動의 場所에 對한 制約도 상당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週末의 餘暇活動은 그 種類와 함께 活動이 이루어지는 場所에 있어서도 훨씬 큰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活動의 社會集團別 差異는 平日보다 週末의 餘暇活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으로 期待할 수 있다.

### 3) 連休, 名節,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

連休를 利用한 餘暇活動은 친지방문, TV시청, 등산, 관광여행의 順으로 나타나며 주택內에서의 活動(TV시청, 휴식 또는 잠, 정원가꾸기·집안손질)은 平日이나 週末에 比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連休, 명절, 年暇등은 사람들에게 '特別한 餘暇'로 인식될 수 있고 長期間의 時間이므로, 長時間을 要하는 特別한 餘暇活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여행과 같은 매우 積極的이고 費用이드는 活動이나, 家族, 親知등 비형식적 人間關係의 심화에 관계되는 活動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명절을 利用한 餘暇活動으로는 성묘와 친지방문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추석이나 설등 전통적인 명절에 귀향하여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뵙거나 제례에 참례하는 것은 産業化, 都市化된 우리 社會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社會的 규범인 동시에 관습화된 餘暇活動이다. 그것은 社會的 儀式인 同時에 自己확인의 즐거움에 對한 추구로 여가활동으로서의 特性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으로는 해수욕과 관광여행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것은 年暇 本來의 目的에 부합하는 活動으로 이러한 현상은 世界

7) 李長春, 1981, 前揭論文, pp. 468-469.

〈표 2〉 전체적인 여가활동 비율

(%)

분 류	종 류	평일여가활동	주말여가활동	연휴여가활동	명절여가활동	연가여가활동
T V 시청		180(24.1)	107(14.3)	72( 9.8)	21( 2.8)	23( 3.3)
휴식·잔		143(19.1)	94(12.5)	58( 7.9)	12( 1.6)	36( 5.1)
음악 감상		36( 4.8)	8( 1.1)	9( 1.2)	2( 0.3)	1( 0.1)
바둑 등 잡기		68( 9.1)	15( 2.0)	13( 1.8)	9( 1.2)	4( 0.6)
독서		103(13.8)	13( 1.7)	17( 2.3)	1( 0.1)	4( 0.6)
정원가꾸기·집안손질		75(10.0)	79(10.5)	51( 7.0)	6( 0.8)	30( 4.2)
이웃마실		17( 2.3)	8( 1.1)	9( 1.2)	1( 0.1)	0
친지방문		6( 0.8)	35( 4.7)	83(11.4)	309(40.9)	52( 7.4)
친구와음주대화		21( 2.8)	21( 2.8)	17( 2.3)	6( 0.8)	3( 0.4)
가족과외식		4( 0.5)	26( 3.5)	49( 6.7)	11( 1.5)	10( 1.4)
산책		22( 2.9)	24( 3.2)	14( 1.9)	0	3( 0.4)
스포츠경기관람		1( 0.1)	8( 1.1)	17( 2.3)	0	4( 0.6)
영화관람		0	2( 0.3)	8( 1.1)	6( 0.8)	2( 0.3)
쇼핑		8( 1.1)	21( 2.8)	12( 1.6)	1( 0.1)	2( 0.3)
정구		14( 1.9)	19( 2.5)	15( 2.1)	1( 0.1)	2( 0.3)
등산		14( 1.9)	80(10.7)	69( 9.4)	2( 0.3)	33( 4.7)
소풍		2( 0.3)	20( 2.7)	47( 6.4)	1( 0.1)	27( 3.8)
낚시		2( 0.3)	63( 8.4)	43( 5.9)	1( 0.1)	50( 7.1)
골프		13( 1.7)	31( 4.1)	12( 1.6)	0	1( 0.1)
관광여행		0	4( 0.5)	62( 8.5)	2( 0.3)	169(23.9)
야영		1( 0.1)	3( 0.4)	9( 1.2)	0	42( 5.9)
해수욕		0	0	8( 1.1)	0	164(23.2)
싱크		0	1( 0.1)	13( 1.8)	340(45.0)	32( 4.5)
스키		0	0	0	0	2( 0.3)
종교활동		3( 0.4)	48( 6.4)	11( 1.5)	2( 0.3)	7( 1.0)
기타		14( 1.9)	20( 2.7)	13( 1.9)	21( 2.8)	3( 0.4)
계		747(100.0)	750(100.0)	731(100.0)	755(100.0)	706(100.0)

의인 추세이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름철에 年暇를 얻어 이른바 休暇(vacance)를 즐기는 것이다. 年暇를 利用하여 고향을 방문하거나 성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대체로 명절에 귀향하지 못한 계층의 주민들이 年暇를 이용하여 다녀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 (3) 餘暇活動의 空間的 範圍

#### 1) 平日의 餘暇活動場所

平日의 餘暇活動은 大部分 집안에서(76.1%)와 住居地域(11.0%)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여가와 관련된 住居環境의 重要性이 강조된다.

#### 2) 週末의 餘暇活動場所

週末의 餘暇活動은 住居地域을 벗어나는 비율

이 높아(43.6%) 그 空間的 分布가 다변화하고 넓어진다(표 3).

週末의 餘暇活動은 그 場所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① TV시청과 휴식 또는 잠, 정원가꾸기·집안손질등의 住宅 및 住居地域型.

② 쇼핑, 영화관람, 가족과 외식, 친구와 음주대화 등이 이루어지는 都心型.

③ 住居地域을 떠나 서울시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野外型.

④ 서울시域을 벗어나 근교의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등 인근지역에서 등산, 낚시등 스포츠를 즐기는 全國型.

따라서 週末에는 서울의 많은 人口가 근교로 빠져 나가게 되므로 고속도로 利用者를 爲한 교

〈표 3〉 전체적으로 살펴본 여가활동 장소별 비율

(%)

장 소	평일여가활동장소	주말여가활동장소	연휴여가활동장소	명절여가활동장소	연가여가활동장소
집 안 에 시	567( 76.1)	314( 42.2)	222( 30.4)	91( 12.3)	93( 13.2)
주 거 지 역	82( 11.0)	106( 14.2)	76( 10.4)	27( 3.7)	16( 2.3)
도 심	38( 5.1)	67( 9.0)	93( 12.7)	100( 13.6)	26( 3.7)
도심외곽외한서울시	33( 4.4)	99( 13.3)	114( 15.6)	142( 19.2)	60( 8.5)
시 외 지 역	25( 3.4)	158( 21.3)	226( 30.9)	378( 51.2)	511( 72.3)
계	745(100.0)	744(100.0)	731(100.0)	738(100.0)	706(100.0)

통 서비스 개선등의 배려가 요청되며, TV나 신문, 라디오등 매스콤을 이용하여 서울주변지역의 도로사정등 친절한 예보가 必要해진다. 또한 근교에 週末의 여가활동을 爲한 건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져야 건전한 餘暇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3) 連休, 名節,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 場所 連休에도 週末의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4個의 類型이 나타나며 住宅 및 住居地域에서의 餘暇活動 比率이 週末餘暇活動보다도 낮아진다. 이는 週末보다 더욱 계획된 여가활동을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都心에서의 活動, 都心を 제외한 서울市域 또는 市外地域의 餘暇活動이 週末에서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① 住居型: 정적인 성격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건강등의 이유로 넓게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와 비용절감의 여가활동형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공간적으로 넓게 활동하기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都心型: 都心の 오락시설을 즐기는 계층에 나타나는 오락형이다.

③ 野外型: 친지방문, 소풍, 스포오츠 경기관람등 서울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형태이다.

④ 全國型: 관광여행, 친지방문으로 서울시에 국한되지 않고 全國의인 分布를 보인다. 유명관광지, 사찰, 온천지대, 지방도시등이 선호하는 대상지이며 登山, 낚시등의 스포오츠는 名山과 강가, 저수지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명절에는 ① 주택과 주거지역의 비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다. ② 도심형은 주로 10代, 20代의 연령층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향하지 못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餘暇活動이다. ③ 都心を 제외한 서울市域活動도 平日이나 週末, 連休때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 성묘나 친지방문이 주 활동이 되고 있다. ④ 市外地域은 名節의 活動場所中 가장 높은 비율(51.2%)을 가진다. 고향방문, 성묘, 친지방문으로 서울시를 벗어나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名節때마다 귀향인구를 爲한 交通편, 交通施設에 대한 問題가 대두되기도 한다. 거의 全國 各地域의 人口가 서울로 많이 轉入한 증거이기도 하다.

年暇를 利用한 여가활동 장소는 크게 住居型和 全國型으로 分類되고, 都心에서의 活動은 극히 적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住居型은 TV시청, 정원가꾸기·집안손질, 휴식 또는 잠등으로 여가를 갖는다. 全國型은 관광여행과 해수욕이 가장 많고 비율도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72.3%). 住民의 大部分이 年暇를 여름철 피서를 위한 휴가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계속되고 國民經濟가 윤택하여 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을 이용한 餘暇活動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여가프로그램(leisure program)의 개발과 그 시설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 (4) 餘暇活動의 所要時間과 頻度

餘暇를 갖는 所要時間은 ㉠ 2시간이내, ㉡ 2시간~5시간, ㉢ 5시간~당일, ㉣ 1박 2일, ㉤ 2박 3일, ㉥ 3박 4일, ㉦ 4박 5일, ㉧ 5박이상으로 分類하였다.

餘暇活動을 갖는 頻度は, 平日의 餘暇活動은 1週당 갖는 頻度數, 週末의 餘暇活動에 있어서 1個月당 갖는 頻度數, 連休, 名節, 年暇에서

는 1년 동안에 갖는 頻度數를 알아보았다.

#### 1) 平日 餘暇活動 소요시간과 頻度

平日的 餘暇活動 소요시간은 2시간이내가 59.6%를 차지한다. 그리고 차위로 2시간~5시간이 34.1%이다.

平日的 餘暇活動 頻度は 1週당 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것은 平일에 勞動時間, 生活必需時間外에 餘暇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쁜 都市生活의 一面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週末 餘暇活動 소요시간과 頻度

週末의 餘暇活動에는 平일에 비해 많은 時間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5시간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차위로 5시간~당일(32.3%)이 된다.

또한 週末의 여가활동 빈도는 1個月당 2회에 국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公共기관에서는 日曜日을 休日로 定하고 있으나 商業을 위시하여 小規模 業體에서는 한달중의 休日을 2회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3) 連休, 名節, 年暇를 利用한 여가활동 所要時間과 頻度

連休와 명절, 연가를 利用한 여가활동은 住居型, 日歸型, 連泊型으로 나눌 수 있다. 집안에서 TV시청, 휴식·수면, 정원가꾸기·집안손질 등의 여가활동은 住居型이고 당일로 귀가하는 日歸型<sup>8)</sup>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年暇를 이용한 여가활동에서는 連泊型이 많다.

連休의 頻度は 1年中 6~9회가 가장 많으며 名節은 거의가 1年中 2회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신정, 구정, 추석등의 餘暇活動을 의미하는 것 같다. 年暇의 頻度は 1年中 1~2회가 가장 많다.

### 3. 社會集團別 餘暇活動

앞章에서는, 餘暇活動을 平日的 餘暇活動, 週末의 餘暇活動, 連休, 名節,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으로 區分하여 그 特色을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週末의 餘暇活動은 平日的 餘暇活動보다

活動種類가 다양하고 餘暇의 時間이 길고 주기적이며 事前에 計劃된 餘暇活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連休, 名節,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은 '特別한 餘暇'로 생각할때에 週末의 餘暇活動은 훨씬 보편적이고 生活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社會集團別 餘暇活動은 週末의 餘暇活動을 지표로 하여 一貫性있게 그 特色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年齡層別 餘暇活動

週末의 餘暇活動을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TV 시청은 30대가 19.7%, 40대가 13.5%, 50대가 14.4%이다. 40대의 人口가 生涯週期的 측면에서 社會적으로 가장 바쁜 활동기이므로 다른 연령층에 比하여 낮은 비율이 된 것 같다. 休息과 수면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登山, 낚시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餘暇活動은 40대, 50대층에서 더욱 선호하는데 비해 정원가꾸기·집안손질은 30대층에 더 많다 이것은 젊은 연령층에서는 어린 子女들을 양육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가꾸는데 여가를 이용하는 까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6.4%)은 30대 연령층(9.1%)에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친지방문(4.7%)에 있어서도 30대(7.6%)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 수록 소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향이므로 여가를 이용하여 부모님이나 웃어른을 방문한다고 分析할 수 있다.

골프, 산책, 정구는 30대 연령층에서는 거의 없고 40대, 50대층에서 나타난다. 가족과의 외식, 친구와의 음주대화, 쇼핑은 30대층에서 선호하는 경향이다(그림 1). 따라서 餘暇活動의 特色은 生涯週期的인 面에서도 뚜렷하게 다를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각 연령층의 여가활동종류에 對한 선호도가 그 연령층의 상대적 특성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時代의 社會經濟的, 文化的 背景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층별 주말 여가활동 場所는 餘暇活動의 種類가 다양해짐에 따라 空間적으로 폭 넓게 분

8) 高橋伸夫·高林清和, 1978, "浜松市における餘暇圈の構造," 人文地理學研究, II, pp.95-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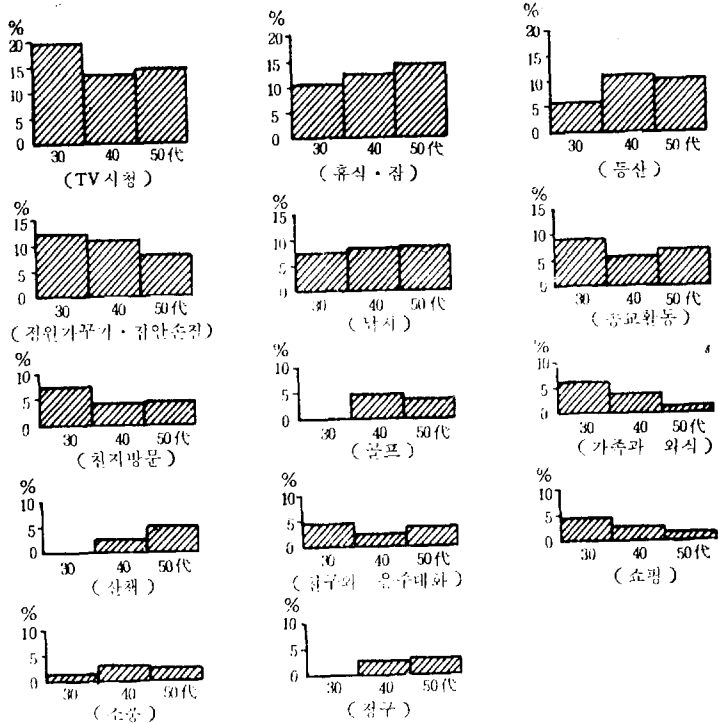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층별 주말여가활동 비교

布한다. 30代의 연령층에서는 집안에서의 활동(50.8%)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그림 2). 이는 경제적 여유가 제한되고 자녀들이 어리므로

住宅內에서의 활동에 비중이 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代의 연령층은 人生의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經濟的으로 安定된 연령층(age group)이라 그 活動範圍가 넓게 나타나는 現象이 뚜렷하며, 市外地域에서의 活動比率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50代에서는 집안에서의 비율은 떨어지나 住居地域의 活動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또한 都心에서의 活動이 낮은 반면에 都心을 벗어난 서울주변지역에서의 活動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이는 都心の 機能과 복잡한 분위기에 高年齡層의 적응도나 선호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現象은 餘暇活動에 있어서 生涯週期(life cycle)에 따른 活動空間(activity space)의 差異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週末의 餘暇 所要時間은 모든 年齡層에서 平日의 餘暇 所要時間보다 늘어난다. 30代의 연령층에서는 2시간~5시간(43.9%)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TV시청, 휴식·잠, 또는 정원가꾸기·집안손질 등의 여가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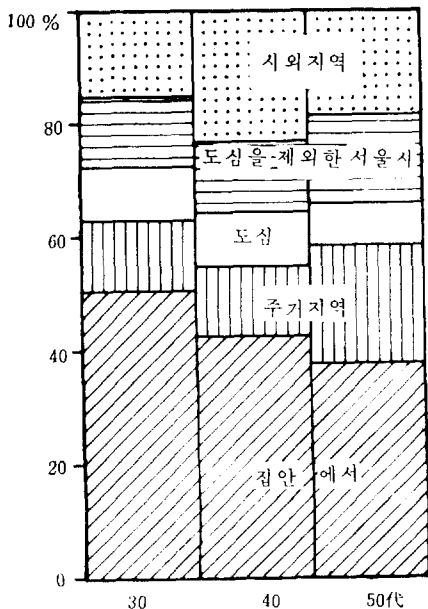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층별 주말여가 활동장소



인하여 나타나는 것 같다.

40대의 연령층에서는 1박 2일(6.3%)이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40대의 연령층이 30대나 50대의 연령층에 비해, 社會적으로 積極的(active)인 인구 집단으로서, 공간적으로 넓게 활동하므로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5시간~당일(38.6%)의 시간을 갖는 人口가 많다.

週末의 餘暇活動 頻度는 모든 연령층에서 月 2회가 뚜렷이 높다. 이것은 우리 社會에서 勞動의 時間的 循環(cycle)이 모든 階層에 있어서 반드시 一週(weekly)를 基本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 社會經濟的 地位別 餘暇活動

### ① 教育水準

週末의 餘暇活動에서 TV시청, 휴식·수면과 같은 靜的이고 소극적인 활동은 教育程度가 낮은 계층일수록 높고 登山은 上의 계층과 中의 계층에서 높다. 낚시는 中의 계층에 치우치며 골프는 「上의 上」계층에서 탁월하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겸한 餘暇活動은 主로 中流이상의 계층에 많다. 下의 階層에서는 主로 비용이 적게드는 친지방문이나 친구와의 음주대화에 비율이 높다. 上의 계층에서 宗教活動에 높은 비중을 가지므로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宗教에 對한 關心이 많은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므로 餘暇活動은 教育水準에 의하여도 계층성이 엮보인다.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장소에 있어 都心과 都心을 제외한 서울市域 또는 市外地域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서 空間的 範圍가 넓어지며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活動空間이 제한되고 있다. 週末의 餘暇活動 所要時間은 一般的으로 2시간~5시간의 活動이 主로 이루어지나 「下의 下」계층에서는 2시간이내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즉, 教育程度가 제일 낮은 계층은 週末에 餘暇로 주어지는 時間 역시 상당히 제한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週末의 餘暇 活動 頻度에 있어서 教育水準이 「上의 上」인 계층에서는 月 4회가 높는데 비해

「上의 下」, 「中의 上」, 「中의 中」계층에서는 月 2회가 높으며, 「中의 下」, 「下의 上」, 「下의 下」계층에서는 月 1회가 높다. 즉,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週末을 餘暇活動으로 충분히 利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職 位

職位別로 分析된 週末의 餘暇活動은 「上의 下」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TV시청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中의 계층에서 下의 계층으로 직위가 낮아지면서 비율이 높아진다. 下의 계층으로 갈수록 受動的이고 經費를 절약하는 여가활동이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上의 上」계층에서는 종교활동(16.1%)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TV시청, 등산, 골프가 높은 편이다. 「中의 上」계층에서는 정원가꾸기·집안손질(15.0%)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職位가 「中의 上」에 달하는 소시민이 安定된 家庭生活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계층이 낮아질수록 친지방문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현상이 아주 흥미롭다. 가족과의 외식은 계층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진다.

職位別로 본 週末의 餘暇活動 場所는 上의 계층일수록 空間的으로 넓게 행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上의 上」계층에서는 집안에서의 活動이 23.2%이면서 都心이 16.1%, 市外地域이 23.2%로 分布한다. 그러나 「中의 上」계층이하의 집안에서의 活動이 44.0%를 상회하여 상위 계층보다 活動 空間이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는데 이는 活動種類가 主로 집안에서 가능한 靜的, 受動的 餘暇活動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週末 餘暇活動 場所로서의 市外地域은 近郊 및 경기도 강원도등 주변지역의 山과 江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職位別로 본 週末 餘暇 所要 時間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2시간~5시간의 活動이 가장 많다. 그러나 「下의 下」계층에서는 2시간이내가 52.9%로 가장 많은데 이는 週末에도 하위적인 경우 餘暇活動을 갖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中의 上」계층에서는 5시간~당일의 比率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中의 上」계층에서는 정원가꾸기·집안손질과 TV시청, 휴식과 잠등의 집안에서의 活動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職位別로 본 週末 餘暇活動 頻度는 上의 계층에서 下의 계층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 ③ 月所得

月所得으로 보면 上의 계층에서는 골프, 등산, 낚시, 정구등 스포오르활동의 비율이 높다. 또, 다른 계층에 비하여 종교활동이 많고 가족과의 외식, 쇼핑등도 비교적 높다.

中の 계층에서는 비교적 고르고 다양하게 활동하여 TV시청과 휴식·잠을 즐기는 소극적인 활동도 하지만 정원가꾸기·집안손질등도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등산, 낚시등 건강을 위한 스포오르활동은 上의 계층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下의 계층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下의 계층에서는 주로 TV시청, 휴식·잠들 受動的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고 정원가꾸기·집안손질, 친지방문등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所得이 높을 수록 적극적으로 能動的인 여가활동이 많은 반면에 所得이 낮은 계층에서는 受動的이고 消極的인 活動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다.

週末 餘暇活動 場所는 所得水準이 낮을수록 집안과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都心과 市外地域에서의 活動은 낮아진다.

月所得 계층별에 의한 週末 餘暇 所要時間은 모든 계층에서 2시간~5시간이 가장 많다. 그러나 上의 계층에서는 5시간~당일의 비율이 차이를 차지하고 下의 계층에서는 2시간이내의 비율이 차위로 나타난다.

月所得 계층별에 의한 週末 餘暇活動 頻度는 「上의 上」계층에서 1개월당 1회가 26.1%로서 높은 편이고 「上의 下」, 「中の 上」, 「中の 中」에서는 1개월당 2회가 30%내외로서 우위이며 「下의 上」, 「下의 下」계층에서는 1개월당 1회가 높게 나타났다.

### ④ 所有財産

所有財産으로 본 週末 餘暇活動은 上의 계층에서는 登山, 宗教活動, 골프, 家族과의 외식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外向的 餘暇活動의 비중이 높다.

中の 계층에서는 餘暇活動의 種類가 다양하며 등산과 정원가꾸기·집안손질의 여가활동이 약간 높다.

下의 계층에서는 TV시청, 휴식·잠등의 수동적 여가활동이 주이고 친지방문이 비교적 높아 서민층일 수록 친척유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특기 할 만 하다. 친구와의 음주 대화는 下의 계층일수록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고 宗教活動은 上의 계층에서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所有財産別 週末 餘暇活動 場所는 上의 계층일수록 집안과 주거지역외에 都心과 都心을 제외한 서울시, 市外地域등 空間的으로 넓게 分布하며 下의 계층으로 갈수록 집안과 주거지역에 치우치고 있다. 이것은 下의 계층일수록 靜的이고 受動的인 활동이 많음을 의미하며 空間的으로 넓게 活動하는 데에는 費用을 더 必要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週末 餘暇活動의 소요시간은 전 계층에서 2시간~5시간이 제일 많다(40.3%).

週末 餘暇活動의 頻度는 上의 階層에서는 1개월당 1회, 2회, 3회, 4회등이 고르게 分布하고 中の 계층에서는 2회의 비율이 높으며 「下의 上」계층에서는 月 3회가 많고 「下의 下」계층에서는 月 2회가 많다.

### (3) 社會階層別 餘暇活動

앞에서, 教育水準, 職位, 月所得 및 所有財産 등의 4個 社會 經濟的 指標를 中心으로 集團을 區分하여 各各의 指標에 對한 主觀的 階層區分에 따라 餘暇活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4個指標를 종합하여 社會的 階層을 區分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餘暇活動의 階層的 差異를 종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主觀的으로 區分한 階層所屬(上의 上, 上의 下, 中の 上, 中の 中, 中の 下, 下의 上, 下의 下에까지 7個)에 따라 각각 7點에서 1點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위 4個指標의 점수를 합하는 方法을 썼다. 위의 7개 階層등급의 스케일(scale)은 통계학적으로 rank scale에 가까운 것이므로 그 점수(score)를 加減乘除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資料의 構

〈표 4〉 설문지 응답자의 사회계층별 구성

n=647

계 층	全體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4 지역	제 5 지역
上	69	2	7	10	20	30
中	531	97	103	103	130	98
下	47	17	17	10	3	0
計	647	116	127	123	153	128

成에서 볼 수 있는 심하지 않은 변화(variation)와 계층구분에서의 方法的 關係에 따라 단순한 덧셈에서 오는 무리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9)</sup> 즉 각 응답자는 4점에서 28점까지 사이의 主觀的 階層을 나타내는 점수를 갖게 된다. 여기서 4점이상 8점이하를 下層, 21점이상 28점까지를 上層, 그 사이의 점수는 중간층으로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下의 上」層의 점수(2×4=8)이하에 머무는 사람들을 下層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中の 上」層의 점수(5×4=20)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상층으로 보려했기 때문이다(표 4).

社會階層別 分析에서도 週末의 餘暇活動이 역시 主 分析 對象이 되었다. 그 이유는 前述한 바와 같이 週末의 餘暇가 都市生活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므로 그 만큼 설득력있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平日이나 連休, 名節, 年暇의 餘暇活動에서의 階層的 差異를 週末 餘暇活動의 差異에서 類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階層別 分析에 앞서 제기된 假說은

- ① 上層일수록 餘暇活動이 積極的이고 能動的이며 經費지출이 큰 活動이 두드러질 것이다.
- ② 上層일수록 餘暇活動의 場所가 住宅이나 住居地域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強한 것이다.
- ③ 上層일수록 주말 여가활동의 頻도가 높고 時間的으로 安定된 分布경향을 보일 것이다.

cross-table을 만들어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上的 계층에서는 登山, 골프, 정구등 스포츠(sports)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친구와의 음주대화보다는 가족과의 의식이 더 많이 나타난

〈표 5〉 社會階層別 週末餘暇活動 n=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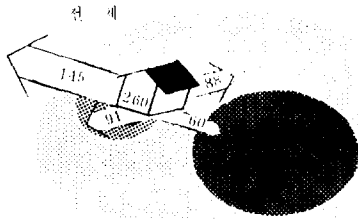
종 류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87(13.4)	5( 7.2)	72(13.5)	10(20.8)
휴식 · 잠	84(12.9)	4( 5.8)	73(13.7)	7(14.6)
등산	74(11.4)	10(14.5)	62(11.7)	2( 4.2)
정원가꾸기 · 안	67(10.3)	2( 2.9)	60(11.3)	5(10.4)
집손질	67(10.3)	2( 2.9)	60(11.3)	5(10.4)
낚시	59( 9.1)	3( 4.3)	54(10.2)	2( 4.2)
종교 활동	42( 6.5)	10(14.5)	30( 5.6)	2( 4.2)
친지방문	30( 4.6)	2( 2.9)	24( 4.5)	4( 8.3)
골프	29( 4.5)	10(14.5)	19( 3.6)	0
가족과의 식	23( 3.5)	5( 7.2)	18( 3.4)	0
산책	20( 3.1)	2( 2.9)	17( 3.2)	1( 2.1)
친구와음주대화	18( 2.8)	0	16( 3.0)	2( 4.2)
스포츠	21( 3.2)	1( 1.5)	15( 2.8)	5(10.4)
정구	17( 2.6)	3( 4.3)	13( 2.4)	1( 2.1)
쇼핑	14( 2.2)	5( 7.2)	9( 1.7)	0
기타	64( 9.9)	7(10.2)	50( 9.4)	7(14.6)
計	649 (100.0)	69 (100.0)	532 (100.0)	48 (100.0)

다. 이는 餘暇活動이 積極的이고 能動的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家族中心의 生活樣式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宗教活動이 上的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生活的 여유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中の 계층에서는 한편으로 등산과 낚시에 작지 않은 비중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TV시청과 휴식·잠, 그리고 정원가꾸기·안집손질에서 上層에 비해 보다 큰 비중을 나타낸다. 즉 餘暇活動의 種類로 보아 上的 階層에 類似한 구조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훨씬 消極的인 餘暇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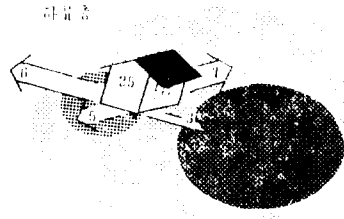
앞의 上·中層의 餘暇活動 分析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下的 계층에서는 TV시청, 휴식·잠 그리고 정원가꾸기·집안손질등 靜的, 消極的인 여가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動的이고 積極的인 餘暇活動이 安定된 餘暇와 經濟力에 기초한 사전계획과 경비부담을 必要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下的 계층에서는 친지방문이나 친구와의 음주대화등의 여가활동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전술하였듯이 下的 계층에서는 中·上層에 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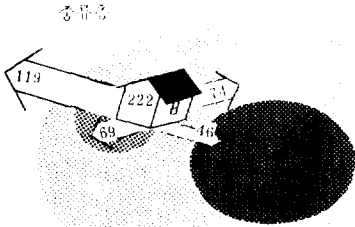
9) Scheuch, E.K., 1961, "Sozialprestige und soziale Schichtung," D.W. Glass und R. König(ed.), *Soziale Schichtung und Soziale Mobilität*, 5. Aufl. pp.64-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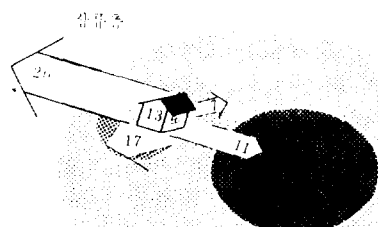
n = 614



n = 46



n = 530



n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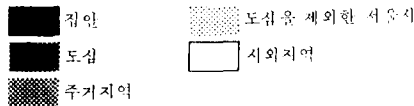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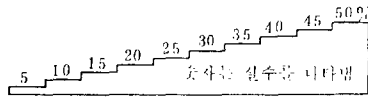


그림 3. 사회계층별 주말여가활동

여 가족단위의 활동보다는 친지나 이웃과의 유대에 바탕을 둔 활동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계층별로 주말 여가활동 場所를 살펴보면 上의 계층일 수록 住宅이나 주거지역을 떠나 都心과 市外地域으로 活動空間이 넓어진다. 그리고 中의 계층이나 下의 계층으로 갈 수록 住宅 및 住居地域에서의 活動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空間적으로 限定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週末을 맞이하여 住居地域 또는 業務地域을 떠나 距離감을 느끼는 전혀 生소한 곳에서 餘暇를 보냄으로써 生活의 반복성과 지루함을 잊고 새로운 活力을 얻고자하는 欲求에는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餘暇活動의 種類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로 그 여가활동의 종류와 결합하여 空間的 移動에 따른 時間的, 經濟的인 制約이 많이 作

用하였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社會階層別 주말 여가활동 소요시간을 보면 上의 階層에서는 下의 階層보다 더 많은 時間을 消費하고 있다. 이는 上層의 경우 活動 空間이 넓고 活動種類가 스포츠 中心의 動的, 能動的

<표 6> 社會階層別 週末 餘暇活動 所要時間  
n=645(%)

소요 시간	全體	上	中	下
2 시간 이내	133 (20.6)	13 (19.1)	108 (20.4)	12 (25.0)
2시간~5시간	258 (40.0)	29 (42.6)	212 (40.1)	17 (35.4)
5시간~당일	213 (33.0)	24 (35.3)	177 (33.5)	12 (25.0)
1박 2일	41 (6.4)	2 (2.9)	32 (6.0)	7 (14.6)
計	645 (100.0)	68 (100.0)	529 (100.0)	48 (100.0)

〈표 7〉 社會階層別 週末 餘暇活動 頻度  
n=628(%)

頻度數	全體	上	中	下
1 회	134( 21.3)	15( 22.7)	105( 20.4)	14( 29.8)
2 회	182( 29.0)	12( 18.2)	156( 30.3)	14( 29.8)
3 회	113( 18.0)	14( 21.2)	92( 17.9)	7( 14.9)
4 회	140( 22.3)	18( 27.3)	118( 22.9)	4( 8.5)
5 회 이상	59( 9.4)	7( 10.6)	44( 8.5)	8( 17.0)
計	628(100.0)	66(100.0)	515(100.0)	47(100.0)

積極的 活動이라는 사실과도 관련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下의 계층에서는 2시간 이내로의 活動의 비율이 높아진다.

下의 계층에서 1박2일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아진 것은 단순 노동등의 生活 형태로 인해 TV시청, 휴식등으로 週末을 완전히 여가로 전환, 소모하는 이유라고 보여진다.

社會階層別로 본 週末 餘暇活動 頻度は 月 2회가 가장 비율이 높다. 그러나 차위로는 4회가 되는데 이는 누구나 모든 週末을 餘暇로 유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계층에 따라서도 그

特色이 나타나는 데 上의 계층에서는 4회가 으뜸으로, 中의 계층에서는 2회가 많은 것으로, 下의 계층에서는 月 1회, 2회가 같이 많았다. 〈표 7〉

이상의 分析 結果는 대체로 假說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의 종류, 공간 범위 및 시간과 빈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각 계층이 갖는 價値觀의 差異나 生活樣式의 差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具體的으로 는 각 階層이 갖는 社會經濟的 能力과 함께 餘暇 내지 活動時間의 制約要素(constraints)가 階層別로 相異하게 作用한다는 點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住居地域別 餘暇活動

##### (1) 調查地域의 一般의 特性

設問紙 應答者들의 住居地域을 선정한 五個 學校 學群의 區域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住居地域을 分類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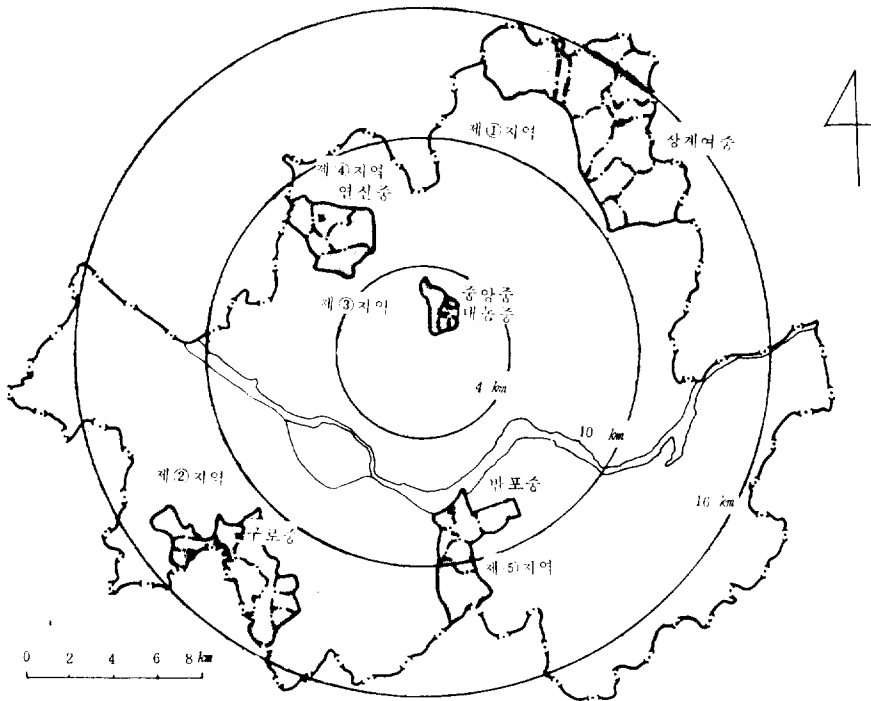


그림 4. 調查地域

〈표 8〉 住居地域別 一般的인 特性

지역	위치	주민의 거주지역	금투일의 分類	朴永奎의 分類
제 1 지역 (상계여중지역)	CBD로부터 12~16km, 북동부 외곽지역	상계동 52.5 중계동 28.4 하계동 7.8	서울의 북동지역, 최저급 단독 주택지역	저소득층분포지역, 도시외곽부에 편재 월세, 전세 집단
제 2 지역 (구로중지역)	CBD로부터 10~15km, 남서부 공업지대	구로동 51.0 개봉동 18.7 독산동 7.7	서울의 남서지역. 저급 단독 주택지역	중·하류층 분포지역, 고용기회와 연결이 용이한 곳, 직장과의 접근이 용이한 곳,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도시외곽부, 월세 집단
제 3 지역 (중앙중·대동중지역)	CBD로부터 4km이내중심지	원서동 20.1 가회동 11.7 삼청동 9.1 계동 7.1 원남동 4.5 익선동 5.8	1394년 서울수도 건설후 양반 중심의 고급 주택지. 1969년 이전에 건축된 소규모 주택지역, 주택용 건물 및 대지의 밀도가 극히 낮다. 비거주기능이 우세.	중류층 분포지역, 자가 또는 월세 집단.
제 4 지역 (연신중지역)	CBD로부터 4~8km, 북서부 중간지역	불광동 53.7 갈현동 16.6 대조동 12.0 녹번동 6.9	주로 1970~75년 건축됨, 중급 단독 주택지역, 주로 강북에 편중.	중 상류층 분포지역, 일부 고소득층 분포지역, 현대식 단독 주택지역, 자가집단.
제 5 지역 (반포중지역)	CBD로부터 8~12km 남부신흥아파트지역.	반포동 67.9 방배동 12.1	1976년 이후 고급 공동 주택지역, 주로 강남에 분포.	집단 아파트 단지, 고소득층 분포지역, 대규모의 군집화된 자가, 전세집단

제①지역...상계여중 주변지역(서울市 외곽지역)(표 8)

設問紙의 應答者들은 주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거주한다. CBD로부터 北東쪽으로 12~16km 떨어져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市 외곽지역이며 金斗日<sup>10)</sup>은 最低級 單獨住宅 地域으로, 朴永奎<sup>11)</sup>는 月賃, 傳賃集團의 低소득층 分布지역으로 規定하고 있다.

제②지역...구로 중 주변지역(공업단지 주거지역)

設問紙의 應答者들은 주로 구로동, 개봉동, 독산동에 거주한다. CBD로부터 10~15km 떨어진 남서부 공업단지를 둘러싼 이곳을 金斗日은 低級單獨住宅 地域으로 朴永奎는 中下流層, 또는 低所得層의 分布地域이라고 하였다. 職場과의 接近이 용이한 곳 또는 고용기회와 연결이 용이한 곳이다. 그러나 都市의 편익시설이 未備하고

都心으로의 接近性도 낮은 都市외곽부라고 할 수 있다.

제③지역...중앙 중·대동 중 주변지역(전통적 舊 住居地域)

學校 學群의 區域이 광대하여 學父母의 거주지역이 매우 넓게 分布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 중·대동 중의 學校 주변 지역인 계동,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익선동등 오랜 전통적 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住民을 주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1個 學校당 거주자가 적으므로 2個 學校의 學父母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CBD로부터 4km이내의 都市중심부에 위치한다. 金斗日은 1394年 서울이 行政의 中心地로 건설된 이후 兩班 中心의 高級住宅 地域이었으며 주로 1969年 이전에 건축된 소규모주택지역으로 住宅用 建物 및 地의 밀도가 극히 낮은 非거주 기능이 우세한 非住宅 地域으로 分類하였고 朴永奎

10) 金斗日, 1983, 서울市 住宅地域區分에 關한 研究, 서울대 大學院 碩士論文, p. 33.

11) 朴永奎, 1983, 住宅의 所有關係와 居住地 分化現象에 關한 研究, 서울대 大學院 碩士論文, pp. 25-57.

는 中流層의 分布地域으로 自家 또는 月賃集團으로 論하였다.

제④지역...연신 중 주변지역(신흥 단독 주택 지역)

設問紙의 應答者들은 주로 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녹번동에 거주하고 있다. CBD로 부터 4~8km떨어진 북서부 중간 거주 지역이다. 金斗日은 中級 單獨住宅地域으로 區分하였고, 朴永奎는 中·上流層 分布地域, 또 一部 高所得層 分布地域으로서 自家集團으로 分類하고 있다. 또 李琦錫<sup>12)</sup>도 高所得層 居住地로 규정하고 있다.

제⑤지역...반포 중 주변지역(강남 아파트 단지 지역)

設問紙의 應答者들은 주로 반포동,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다. CBD로 부터 8~12km에 위치한 서울 南部의 신흥 집단 주택 지역이다. 金斗日은 고급 공동 주택 지역으로 分類하였고 朴永奎는 집단아파트 단지로 대규모 군집패턴을 보인 高所得 分布地域으로 自家집단, 傳賃集團으로 나누었으며 李琦錫도 漢江邊에 위치한 새로운

高所得層으로 규정되었다.

(2) 住居地域別 設問紙 應答者의 社會經濟的地位<표 9>

제①지역 ; 다른 地域에 比하여 女性比가 약간 높으며 연령별로 보면 30代의 젊은 계층이 많고 주관적 계층분류에 의하여 교육수준, 직위, 월소득, 소유재산등에 上의 比率이 아주 적고 下의 比率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제②지역 ;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관적 계층분류에서 월소득이 특히 下에 많은 비중이 나타나고 있어 生活의 安定度가 낮게 나타난다.

제③지역 ; 전통적 舊 住居地域으로 年齡別 계층을 보면 50代가 30.5%로 타지역에 比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朴英漢<sup>13)</sup>에 依하면 이 地域의 연령구조는 Old age structure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主觀式 階層 分類에 나타난 것은 教育程度가 제①지역, 제②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며 직위, 월소득, 소유재산에 있어서도 제①지역, 제②지역보다 높고 제④지역, 제⑤지역보다 낮게 나타

<표 9> 住居地域別 設問地 應答者의 社會經濟的地位 (%)

	성 별		연 령 별			주관적계층소속				
	남	여	30代	40代	50代	분류별	교육정도	직 위	월소득	소유재산
제 1 지 역	73.7	26.3	15.6	64.5	19.9	상 중 하	19.2 71.6 9.2	8.5 66.7 12.1	4.2 77.3 14.2	2.8 67.3 21.2
제 2 지 역	84.5	15.5	11.0	65.8	18.7	상 중 하	21.3 70.3 7.7	13.6 63.8 11.6	8.4 72.8 16.8	6.9 66.5 19.4
제 3 지 역	85.7	14.3	8.4	58.4	30.5	상 중 하	37.7 57.8 2.0	15.6 68.2 5.8	11.1 78.6 5.8	9.1 72.7 11.7
제 4 지 역	87.4	12.6	6.9	74.9	17.7	상 중 하	57.2 40.6 1.7	25.7 65.2 1.7	16.6 77.1 2.3	8.6 81.1 4.6
제 5 지 역	82.1	17.9	2.1	77.9	19.3	상 중 하	74.3 25.0 0.7	41.4 52.9 0	25.7 70.7 2.1	21.4 73.5 3.6

12) 李琦錫, 1980, “大都市 居住地 分化和 패턴에 관한 研究,” 韓國의 都市와 村落研究, 보진재, p. 156.

13) 朴英漢, 權容友, 1980, “서울市の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韓國의 都市와 村落研究, 보진재, p. 110.

나 중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제④지역 ; 신흥 단독 주택이 많고 응답자중 女子比率이 제일 낮고 30代의 연령층이 낮은 반면 40代가 많은 편으로 經濟적으로 安定된 계층이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계층 분류에서도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제⑤지역 ; 강남의 집단 아파트 단지지역으로 30代가 아주 낮아 2.1%이고 40代가 가장 많은 社會的, 經濟적으로 기반이 다져진 安定된 계층이다. 주관적 계층 분류상 모든 지표에서 上의 계층이 가장 두터운 지역으로서 職位別 계층 분류에서는 下의 계층이 없다.

(3) 地域別로 본 餘暇活動

제①지역 ; 정원가꾸기 · 집안손질 (16.1%)과 휴식 · 잠(15.3%)이 지배적 활동이다. 전자는 설문지 응답자의 27.7%가 여성이고, 30代의 구성비가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 세대가 많으므로 새 가정을 꾸미고 어린 子女를 양육하는 까닭이라고 해석된다. 후자의 경우 대 도시 주변지역이며 사회 경제적 계층이 낮은 주민의 집단으로 경비의 절약과 단순한 여가활동의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表 10).

<표 10> 第一地域 社會階層別 週末 餘暇活動

活動種類	n=118(%)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15(12.7)0		13(13.3)	2(11.1)
휴식 · 잠	18(15.3)0		14(14.3)	4(22.2)
등산	11(9.3)0		9(9.2)	2(11.1)
정원가꾸기 · 집안손질	19(16.1)0		16(16.3)	3(16.7)
낚시	13(11.0)0		12(12.2)	1(5.6)
종교활동	8(6.8)2(100.0)		6(6.1)	0
친지방문	10(8.5)0		7(7.1)	3(16.7)
골프	1(0.8)0		1(1.0)	0
가족과외식	4(3.4)0		4(4.1)	0
산책	3(2.5)0		3(3.1)	0
친구와음주대화	7(5.9)0		6(6.1)	1(5.6)
소풍	1(0.8)0		1(1.0)	0
정구	0	0	0	0
쇼핑	1(0.8)0		1(1.0)	0
기타	7(5.9)0		5(5.1)	2(11.1)
計	118 (100.0)	2 (100.0)	98 (100.0)	18 (100.0)

餘暇活動의 場所를 보면 住民의 63.0%가 住宅과 住居地域에서 活動하고 있다. 都心에서의 活動보다 市外地域에서의 活動이 더 활발하다(그림 5) 이는 이 지역이 都心으로 부터 먼 거리에, 경기도에 인접한 경제지역에 위치한 주거 지역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4)

週末의 여가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은 中流層에서는 5시간 전후가 가장 많으며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시간이다. 特히 下流層에 갈수록 길어지는 現象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의 주말 여가활동이 주로 정원가꾸기 · 집안손질, 휴식 · 잠, TV시청등 住宅內에서의 活動이기 때문인것 같다.

週末의 여가활동 빈도는 中流層에서는 月 2회, 下流層에서는 月 1회가 많다. 저소득의 下위계층에서는 모든 週末을 여가로 전환하지 못하는 불규칙적 생활리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特性으로 因해 계획된 여가를 갖는 기회가 적으므로 경비의 부담과 함께 작용하여 靜的,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②지역 ; 대 도시 공업단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표 11> 第二地域 社會階層別 週末 餘暇活動

n=127(%)

活動種類	n=127(%)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24(18.9)	0	20(19.4)	4(23.5)
휴식 · 잠	22(17.3)	0	19(18.4)	3(17.6)
등산	8(6.3)	1(14.3)	7(6.8)	0
정원가꾸기 · 집안손질	13(10.2)	0	12(11.7)	1(5.9)
낚시	12(9.4)	1(14.3)	11(10.7)	0
종교활동	7(5.5)	1(14.3)	5(4.9)	1(5.9)
친지방문	4(3.1)	1(14.3)	3(2.9)	1(5.9)
골프	0	0	0	0
가족과외식	4(3.1)	2(28.5)	22(1.9)	0
산책	4(3.1)	0	4(3.9)	0
친구와음주대화	4(3.1)	0	3(2.9)	1(5.9)
소풍	7(5.5)	0	4(3.9)	3(17.6)
정구	1(0.8)	0	1(1.0)	0
쇼핑	4(3.1)	1(14.3)	3(2.9)	0
바둑	7(5.5)	0	4(3.9)	3(17.6)
기타	6(4.7)	1(14.3)	5(4.9)	0
計	127 (100.0)	7 (100.0)	103 (100.0)	17 (100.0)



로 일반적으로 TV시청과 휴식·수면의 여가활동에 비중이 크다. 소풍이 特色있는 活動으로서 下の 계층에서 두드러진다. 아마도 공업단지内の 주거지역으로서 週末에는 쾌적하고 싱그러운 야외활동을 갖게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표 11).

週末의 여가활동 장소는 전체적으로 집안과 주거지역 비중이 60.6%로 높는데 上流層서는 오히려 都心の 比가 높다. 그러나 都心에서의 活動은 中流層, 下流層에서는 그 比率이 아주 낮다. 이는 제②지역 역시 都心으로 부터 남서 방향으로 멀리 위치한 때문이다.

주말 여가활동 소요시간은 2시간~5시간이 가장 많아 제①지역 보다 짧다.

주말의 여가활동 빈도는 月 2회가 많은 데 上流層에서는 月 3회가 많으며 下の 계층에서는 月 1회와 2회의 비율이 같게 많아 下の 계층으로 갈수록 그 回數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제③지역; 대도시 都心지역에 있는 전통적 舊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여가활동은 中流層에서 여가활동 종류가 다양하고 고르게 分布함으로서 그 特徵을 갖는다(표 12).

週末의 여가활동 장소는 都心에서의 活動이

〈표 12〉 第三地域 社會階層別 週末餘暇活動 n=123(%)

活動種類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17(13.8)	1(10.0)	14(13.6)	2(20.0)
휴식·잠	16(13.0)	0	16(15.5)	0
등산	15(12.2)	1(10.0)	14(13.6)	0
정원가꾸기·집안손질	12(9.8)	0	11(10.7)	1(10.0)
남시	12(9.8)	0	11(10.7)	1(10.0)
종교활동	4(3.3)	1(10.0)	2(1.9)	1(10.0)
친지방분	9(7.3)	1(10.0)	8(7.8)	0
골프	2(1.6)	0	2(1.9)	0
가족과외식	3(2.4)	2(20.0)	1(1.0)	0
산책	4(3.3)	0	3(2.9)	1(10.0)
친구와음주대화	4(3.3)	0	4(3.9)	0
소풍	3(2.4)	0	1(1.0)	2(20.0)
정구	4(3.3)	1(10.0)	2(1.9)	1(10.0)
쇼핑	2(1.6)	0	2(1.9)	0
기타	16(12.9)	3(30.0)	12(11.7)	1(10.0)
計	123(100.0)	10(100.0)	103(100.0)	10(100.0)

〈표 13〉 第四地域 社會階層別 週末餘暇活動 n=153(%)

活動種類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16(10.5)	2(10.0)	12(9.2)	2(66.7)
휴식·잠	14(9.2)	1(5.0)	13(10.0)	0
등산	25(16.3)	8(40.0)	17(13.1)	0
정원가꾸기·집안손질	17(11.1)	0	17(13.1)	0
남시	14(9.2)	1(5.0)	13(10.0)	0
종교활동	12(7.8)	2(10.0)	10(7.7)	0
친지방분	2(1.3)	0	2(1.5)	0
골프	9(5.9)	2(10.0)	7(5.4)	0
가족과외식	7(4.6)	0	7(5.4)	0
산책	5(3.3)	0	5(3.8)	0
친구와음주대화	2(1.3)	0	2(1.5)	0
소풍	3(2.0)	1(5.0)	2(1.5)	0
정구	4(2.6)	0	4(3.1)	0
쇼핑	3(2.0)	1(5.0)	2(1.5)	0
기타	20(13.0)	2(10.0)	17(13.1)	1(33.3)
計	153(100.0)	20(100.0)	130(100.0)	3(100.0)

어느 지역보다 높다. 이는 이 지역이 都心に 위치하고 또 都心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都心を 제외한 서울市域에서의 活動이 적은 편이다(그림 5). 住民의 大

〈표 14〉 第五地域 社會階層別 週末餘暇活動 n=128(%)

活動種類	全體	上	中	下
T V 시청	15(11.7)	2(6.7)	13(13.3)	0
휴식·잠	14(10.9)	3(10.0)	11(11.2)	0
등산	15(11.7)	0	15(15.3)	0
정원가꾸기·집안손질	6(4.7)	2(6.7)	4(4.1)	0
남시	8(6.3)	1(3.3)	7(7.1)	0
종교활동	11(8.6)	4(13.3)	7(7.1)	0
친지방분	5(3.9)	1(3.3)	4(4.1)	0
골프	17(13.3)	8(26.7)	9(9.2)	0
가족과외식	5(3.9)	1(3.3)	4(4.1)	0
산책	4(3.1)	2(6.7)	2(2.0)	0
친구와음주대화	1(0.8)	0	1(1.0)	0
소풍	7(5.5)	0	7(7.1)	0
정구	8(6.3)	2(6.7)	6(6.1)	0
쇼핑	4(3.1)	3(10.0)	1(1.0)	0
기타	8(6.2)	1(3.3)	7(7.1)	0
計	128(100.0)	30(100.0)	98(100.0)	0(0.0)

地域別 週末餘暇活動場所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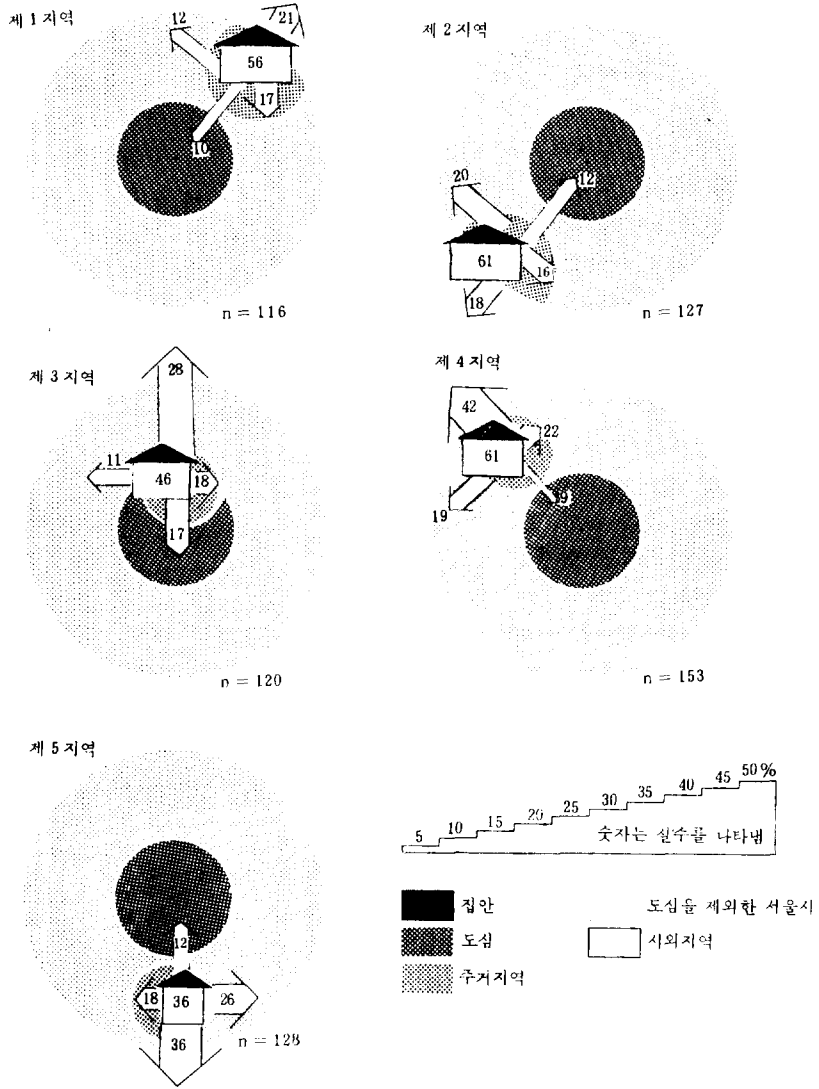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주말여가활동장소 비교

部分이 都心에서 生活하며 都心の 기능에 적응하고 익숙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市外地域으로의 活動은 中류층에 많다.

週末의 여가활동 소요시간은 2시간~5시간이 많다. 5시간~당일이 차위로 週末의 時間을 餘暇活動에 충분히 利用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週末 餘暇活動 빈도는 月 2회가 높은데 上流層에서는 月 1회, 2회의 비율이 똑 같게 높은 비율

이므로 他地域에 비교할 때 독특한 현상이다.

제④지역; CBD로 부터 4~8km 떨어진 新興 주택단지로서 주말의 餘暇活動으로 등산과 낚시가 많다<表 13>. 이는 住民들의 대부분이 高所得層에 屬하며 教育程度가 높은 지역으로 週末의 여가를 주로 정신적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生活의 活力素를 얻기 위한 여가활동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週末의 여가활동 場所는 市外地域이 아주 높다(그림 5). 이는 설문지응답자의

92.6%가 40代, 50代의 연령층으로 生活이 安定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여 空間적으로 넓게 活動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都心에서의 活動은 어느 地域보다 낮다. 이는 住民들의 生活構造가 都心으로의 탄력성이 낮은 까닭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週末의 여가활동 소요시간은 上流層에서는 5시간~당일의 비율이 높고, 中流層에서는 2시간~5시간의 비율이 높다.

週末의 여가활동 빈도는 上流層에서는 月 1회가 비율이 높고 中流層에서 月 2회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⑤지역;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서 고급 공동주택 지역이다.

上流層에서는 골프, 종교활동이 主餘暇活動이며 中의 계층에서는 등산과 TV시청이 主活動이다(表 14). 그리고 下流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가꾸기·집안손질의 선호도가 他地域에 비해 낮다. 그것은 아파트라는 주택구조의 특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週末의 여가활동 場所는 市外地域으로의 活動이 많다. 따라서 이 地域 住民들은 特히 上流層에서 그 活動 반경을 크게 가진다고 보아 틀림없다.

週末의 여가활동 소요시간은 2시간~5시간이 제일 많고 5시간~당일이 차위를 차지하며 2시간 이내는 아주 적은 편이다. 따라서 時間的, 空間적으로 제일 많이, 그리고 넓게 活動한다.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주기적으로 주말의 여가를 충분히 즐기는 現代 都市民의 特色이 뚜렷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말 여가활동빈도도 月 4회가 가장 비율이 높아 다른 地域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 5. 結 論

本 研究는 서울市民의 餘暇活動에 對하여 그 種類, 頻度 및 소요시간과 空間的 패턴(pattern)을 社會的 集團과 住居地域의 特徵에 따라 分析하고 그 差異를 밝히 地理學的으로 說明하려는 目的으로 이루어졌다. 調査 對象地域으로 5個의 住居地域을 選擇하여 設問紙調査가 行해졌다.

全集團에 대해 平日과 週末, 連休, 명절, 年暇를 利用한 餘暇活動의 종류, 공간범위, 소요시간 및 빈도를 分析하였다. 이어 연령과 교육정도, 직위, 월소득 및 소유재산등 4개 지표를 중심으로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餘暇活動의 差異를 記述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主觀的 階層所屬에 따라, 그리고 住居地域에 따라 주로 週末의 餘暇活動을 中心으로 活動의 種類와 時·空間의 特色을 記述하였다.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平日의 餘暇活動은 주로 靜的, 소극적인데 비해 週末의 그것은 動的, 積極的이다. 連休에는 친지방문, TV시청, 등산, 명절에는 성묘와 친지방문, 연가에는 해수욕과 觀光旅行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餘暇活動이다.

(2) 平日의 餘暇活動은 住宅 및 住居地域에서 주로 行해지며 週末에는 都心과 市外地域에까지 그 空間的 分布가 다양해진다. 連休에는 住宅 및 住居地域에서의 活動比率이 더욱 낮아지고 명절과 연가에는 空間적으로 더 넓게 活動한다.

(3) 平日의 餘暇活動 소요시간은 2시간이내가 많고 週末에는 2시간~5시간이 많다. 連休와 명절에는 5시간~당일이 많지만 連泊型도 나타나며 年暇에는 2泊 3일이 가장 높은 比率을 보인다.

(4) 生涯週期的 측면에서 보면 30代의 연령층에서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주인데 비하여 40代의 연령층은 動的, 積極적 活動이 많아져 空間적으로 넓게 움직인다. 50代의 연령층은 週末의 여가활동으로 都心에서의 活動比率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반면에 都心을 벗어난 서울주변지역에서의 活動比率이 높다.

(5)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活動空間이 넓어지며 活動頻도가 잦다. 직위별 餘暇活動은 下의 계층일수록 受動的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여가활동이 주이며 活動場所가 住宅內로 제한되고 있다. 所得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유재산이 많은 계층일수록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餘暇活動의 比率이 높게 나타난다.

(6) 社會階層別 週末의 餘暇活動은 上의 階層에서는 등산, 골프, 낚시, 정구등 스포츠가 큰 比重을 차지하며 下의 계층에서는 休息·잠,

TV시청등 靜的이고 消極的인 活動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각 계층이 갖는 餘暇의 質量 및 가치관과 經費支拂의 能力에서 비롯되는 生活樣式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7) 서울시 外廓地域의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주말의 餘暇活動으로 정원가꾸기·집안손질인 많은 반면에 공업단지 周邊地域은 TV시청과 휴식·수면이 지배적이다. 전통적 舊住居地域에 위치한 中產層 주민의 餘暇活動은 都心에서의 活動이 어느지역보다 높다.

高所得層이 많은 신혼주택 단지 지역이나 강남 집단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을 형성하고 등산, 낚시, 골프, 정구 등 스포츠 중심의 餘暇活動이 공간적으로 넓게 이루어지며 동적이고 적극적인 餘暇活動이 많다.

(8) 노년층, 저소득층등 社會的으로 弱한 集團일수록 주택內, 住居地域의 活動이 大部分이

다. 따라서 주거환경에서의 餘暇活動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전체적으로 주말 여가활동에 까지 TV시청, 휴식·수면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 비중이 크다. 이것은 貧弱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여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있다 따라서 여가 시설 및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餘暇와 餘暇活動에 대한 인식의 고취가 必要하다.

(10) 本 研究은 서울시 5個地域의 中學校 2學年 學父母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가 모든 社會集團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된 내용으로 미루어 기본적인 가설을 검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分野의 既存 研究가 미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資料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研究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Social Geographic Study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Metropolitan Seoul Residents

Sook Hee Park

## Summary

This study analyzes spati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of metropolitan residents by social groups and residential areas. The data of the study are deriv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the five selected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of Seoul.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daily leisure activity is primarily static and passive, while the weekend leisure activity is mainly dynamic and active. Visiting relatives, watching T.V., and mountain climbing are the major leisure activities in the continuous holidays. Visiting ancestral graves and visiting relatives are the major activities during the big holiday, while sea-bathing and sightseeing are the main leisure activities in the annual leave.

The time and space of the leisure activity expands, as the leisure itself extends from the daily to weekend or continuous holidays.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the leisure activities by the age group are also identified; that of the forties is more dynamic and active and spatially broader than that of the thirties, while the fifties emphasize the activities in the suburbs of Seoul.

The leisure activity extends spatially as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urban residents gets higher. Further more, dynamic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are characteristic among the people in higher income level than in lower

income level.

The patterns of the leisure activities are also differentiated by social ranks; the higher ranks emphasize sports and outside activities with their family, while the lower ranks maintain the passive activities and relative- or neighborhood-based activities rather than the family-based activities.

In a low income area of the fringe of Seoul, the leisure activities are mainly done in the houses. In an industrial estate, watching T.V., and rest/sleeping are the major weekend leisure activities. In a traditional middle class residential area, leisure activities within the downtown are considerable. In high class new residential areas and mansion apartment areas, the leisure activities are dynamic, positive and spatially extended with focusing sports such as mountain climbing, fishing, and playing golf and tennis.

Generally speaking, major leisure activities at weekends are too passive and static(watching T.V. and rest/sleeping), it is mainly because facilities and programs for leisure activities in the near of residential areas are lacking.

Especially as the social weaks (elderly and the low income class) emphasize leisure activities within their residential areas, spaces and facilities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more actively.

Therefore, it seems to be much desirable, to give more efforts regional politically in developing urban leisure facilities and in changing social perceptions on leisure activities to a more positive one.